

# “걸어두면 돈 들어온다”... 은행 신년달력 ‘인기몰이’

‘재물 생긴다’ 속설에 ‘품귀 현상’ 영업점 “배부 3일만에 물량 소진” 비용절감·환경보호...제작 부수↓ 중고거래 사이트서 웃돈 거래도

2025년 새해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집에 걸어두면 돈이 들어온다’는 속설이 있는 은행의 신년 달력이 품귀현상을 빚고 있다.

은행 달력에 대한 고객들의 수요가 높은 반면 달력 제작 부수는 전과 비교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에 신년 달력 배포가 시작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모든 물량이 소진되고 무료로 배포되는 은행 달력이 중고거래사이트에서 웃돈을 주고 거래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16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주요 은행들은 최근 각 지점을 통해 2025년 달력 배포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제 막 12월의 절반을 넘긴 시점에도 은행에서 달력을 구하기는 쉽지 않다.

이날 광주 서구 금호동·치평동 일대의 은행 영업점 7곳을 둘러본 결과, 신년 달력을 구할 수 있는 곳은 단 2곳뿐이었다. 그마저도 인기가 높은 탁상용 달력은 모두 소진된 상태였으며 얼마 남지 않은 벽



2025년 새해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집에 걸어두면 돈이 들어온다’는 속설이 있는 은행 달력이 품귀현상을 빚고 있다.

걸이 달력도 물량 소진을 앞두고 있었다. 은행들은 달력 배부가 종료됐음을 알리기 위해 영업점 입구에 ‘2025년 달력 소진’ 등의 문구를 내걸었다. 한 은행은 입구뿐만 아니라 창구 칸막이마다 ‘달력 소진’ 문구를 붙여두기도 했다. 이미 물량이 소진됐음에도 달력을 찾는 고객들의 문의가 쏟아졌기 때문이다.

한 은행원은 “12월 2일부터 달력 배부를 시작했는데 3일 만에 모든 물량이 소진됐다”며 “달력을 찾는 고객들이 많은 지점이라 재고가 소진되자마자 다른 지점에서 달력을 소량 가져와 추가 배포하기도 했

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원은 “금융권 달력을 집에 두면 돈이 들어온다는 속설로 인해 은행 달력 수요는 여전히 높은 편이다. 벽걸이 달력보다 탁상용 달력의 인기가 높아 빠르게 재고가 소진됐으며 현재는 벽걸이 달력만 소량 남아있는 상태다”며 “은행들이 비용 절감 및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일환으로 달력 제작 규모를 줄이면서 품귀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실제 은행들이 연례행사처럼 배부하는 달력의 제작 규모는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감소했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이 지난해 제작해 배포한 2024년 달력은 약 635만9000부로, 지난 2019년 790만6000부와 비교해 4년새 19.6% (약 154만7000부)가량 감소했다. 특히 2021년(590만2000부)과 2022년(590만3000부)에 제작 물량이 크게 줄어든 바 있다. 은행은 모바일 캘린더 사용이 늘면서 종이 달력 수요가 과거에 비해 감소한 데다가, 환경보호 등 ESG 경영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달력 제작 부수를 늘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달력 제작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제작 규모를 줄임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

이처럼 달력 물량 감소로 인해 금융권 달력이 ‘귀한 몸’이 되자 은행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달력이 중고거래플랫폼에서 웃돈을 주고 거래되고 있다. 중고거래플랫폼 ‘당근마켓’을 살펴본 결과, 은행 등 공사에서 배포하는 무료 달력들이 2000원~5000원 등 다양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었다. 거래가 완료된 게시글보다 판매 중인 게시글이 더 많았지만, 탁상용 달력이나 우리은행의 ‘아이유 달력’ 등 인기가 높은 달력은 판매가 완료된 상태였다. ‘달력 무료나눔’ 역시 인기가 높아 이미 거래가 완료됐거나 ‘예약중’인 경우가 흔했

다. 중고거래플랫폼 이용 고객들이 각종 정보를 주고받는 ‘동네생활’ 커뮤니티에는 은행 달력을 찾는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약 한 달 전부터 현재까지 ‘은행 달력 언제부터 나눠줄까요’, ‘벽 달력 받을 수 있는 곳 아시나요’, ‘벽 달력 받을 수 있는 질문 글이 작성돼 있었다. 해당 게시글에는 언제부터 달력을 받을 수 있는지, 어느 은행에 달력이 남아있는지 같은 정보를 알려주는 댓글이 달렸다.

무료로 배포되는 각 기관의 신년 달력이 일종의 소액 벌이로 전락하면서 정작 달력이 필요한 저소득층이나 모바일 캘린더에 익숙지 않은 고령층이 달력을 구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주부 강모(49)씨는 “거실 장 위에 탁상용 캘린더를 올려두고 가족 및 개인 일정을 적어놓는 편이라 은행에 온 김에 신년 달력을 받아 가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물량이 모두 소진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종이 달력은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에게 필수적인데 은행 달력 물량이 줄어들고 무분별하게 달력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정작 정말 필요한 이들이 달력을 구하지 못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글·사진=나다운 기자 dawoon.na@jnilbo.com



**롯데백, ‘서울의 심판’ 우승와인 출시** 롯데백화점은 오는 21일부터 전점에서 국내 최대 규모 블라인드 와인 시음회 ‘서울의 심판’ 1위의 영예에 오른 레드·스파클링 와인을 각각 2500병 한정으로 판매한다. 레드와인은 미국의 ‘본테라 에스테이트 콜렉션 까베르네 쇼비농(5만5000원)’이 최고점을 받았으며, 유기농 포도로 양조하고 프렌치 오크에서 숙성시켜 높은 밀도감과 신선한 과실 풍미를 지니고 있다. 스파클링 와인 1위는 ‘브라운 브라더스 프리미엄 퀴베NV(4만5000원)’로, 호주산 피노노야·샤르도네·피노므니에 품종을 블렌딩한 와인이다. 와인병에서 발효시키는 고급 양조방식으로 제조해 과실향과 ‘브리오슈’ 효모의 풍미를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 금호타이어, 뉴 르노 그랑 콜레오스에 타이어 공급

### 크루젠 HP71 신차용 19·20인치

금호타이어가 르노코리아의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그랑 콜레오스(Grand Koleos)’에 신차용(OE, Original Equipment) 타이어를 공급한다고 16일 밝혔다.

뉴 르노 그랑 콜레오스는 모던한 디자인, 넉넉하고 조용한 실내 공간, 업그레이드된 안전 사양을 바탕으로 르노코리아의 뛰어난 생산 노하우와 품질 경쟁력이 돋보이는 차량이다. 강력한 주행 성능과 우수한 연비 효율을 갖춰 출시 이후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번 그랑 콜레오스에 공급되는 금호타이어 크루젠 HP71 제품은 부드러운 주행 성능과 정숙성을 강화시킨 고성능 프리미엄 컴포트 SUV용 타이어다. 해당 제품은 차별화된 프리미엄 소재와 차세대 컴파운드를 적용해 기존 제품 대비 마모 성능과 스노우 성능을 20% 이상 높였다.

금호타이어는 235/50R19, 245/45R20 2개 사이즈를 공급한다. 이 중 20인치 사이즈에는 폼(Foam)이 부착된 ‘공명을 저감 타이어’가 적용돼 조용한 주행을 원하는 SUV 운전자들을 위해 정숙성을 강화시킨 것이 특징이다.

박소영 기자

## 광주은행, ‘정보보호 경영체계 국제표준’ 인증

### ‘ISO/IEC 27001’ 신규 취득 ‘글로벌 보안 경쟁력’ 입증

광주은행은 최근 정보보호 경영체계 국제표준인 ISO/IEC 27001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관리체계 ISMS와 ISMS-P의 인증과 심사를 모두 통과해 은행의 ESG 보안 경쟁력을 한층 강화했다고 16일 밝혔다.

ISO/IEC 27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가 제정한 정보보호

분야의 가장 권위 있는 국제표준으로서 광주은행은 조직, 인적, 물리적 및 기술적 보안의 4개 영역, 총 93개 항목의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인증을 취득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동 고시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통합 인증 제도인 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와 ISMS-P(Personal Information &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도 2019년에 국내 은행권 최초로 취득해 5년 연속 유지 및 갱신중이다.

이번 인증 취득 및 갱신은 개인정보 보

호 강화와 보안체계 선진화 추진에 대한 광주은행의 지속적인 노력의 성과로, 국내 뿐만 아니라 글로벌 보안 경쟁력은 물론 개인신용정보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보여준 ‘정보보안 체계 선진화’ 구축의 결과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당행의 전산시스템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안정성에 대해 대외적인 신뢰도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됐으며, 이는 고객 정보보호에 대한 광주은행의 ‘진심의 성과’라면서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고객 정보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 광주 경제계 “지역경제 위기 극복 힘 모아야”

### 광주상의·경총, 탄핵 정국 입장문

광주지역 경제계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과 관련해 지역 현안사업 추진과 내년도 국고 예산 확보 등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주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광주경영자총협회는 16일 ‘대통령 직무 정지에 따른 경제계 입장문’을 통해 “정부와 지역 모든 주체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국회는 하루라도 빨리 여·야 정치 합의를 통해 정부와 지속적인 소통을 요청드리며 광주·전남에도 산적한 현안 문제해결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지혜를 모으고 해법을 실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광주경총은 “국가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자동차, 반도체, 조선산업 등은 지역 경제발전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서 “정치적 불안정이 장기화되면 국내의 기업들의 투자 위축이 생산 감소와 고용 불안으로 이어져 소비와 지역 경기침체로 이어질까 우려된다. 이는 광주·전남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될 것이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어 “지역 경제계도 경제 위기 극복과 조속한 정국안정을 위해 힘을 모으고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5일 광주상공회의소도 ‘최근 정국 상황에 대한 지역 경제계 입장문’에서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혼란스러운 정국이 조속히 안정되고 국정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광주상의는 “여야 대치로 내년도 정부

예산 중 광주·전남 미래 핵심사업인 ‘인공지능 기술개발과 미래성장동력 사업비’ 등이 감액된 채 국회를 통과하는 등 지역 주력사업 추진 역시 더딜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여야 정치권은 초당적으로 협력해 국회를 중심으로 혼란한 국정 상황을 하루빨리 수습해야 한다. 정국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의 해결을 통해 한국 경제와 기업의 글로벌 신인도가 안정되고 지역 기업 및 특히 수출입 기업의 매출 증대를 견인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광주지역 경제계도 이번 정치적 혼란으로 논의가 중단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등 지역경제 현안들이 정책과 예산의 우선순위에선 벗어나지 않도록 대응력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최권범 기자